

한돈자조금

porkboard.han-don.com

vol
1239

한돈산업을 지키는
한돈농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3





28



22

CONTENTS



26



32

04

한돈 SPECIAL

04

기획특집

한돈농가 자신을 위해 냄새 문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돈산업의 중요 이슈인 냄새 저감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봅니다.

08

숫자로 보는 사업 이야기

돼지고기 먹을 땐
한돈인증점 마크 확인

한돈자조금의 사업인 한돈인증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0

한돈 NEWS

10

생생현장통신

다시 함께, 다 함께 한돈!

3월 3일 한돈삼겹살데이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2

주요 활동 소식

2022년 2월 · 2022년 3월
한돈자조금 주요 활동

한 달 동안 한돈자조금의 주요 활동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3

TV 속 한돈

흥겨운 자리에는 한돈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한 한돈의 이야기를
짚어 봅니다

14

한돈 소식

한돈의 사회공헌 허브
‘한돈뱅크’ 출범

한돈자조금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
다채로운 뉴스

22

한돈 PLUS

22

위너스 한돈농가

용신양돈영농조합 최재철 대표

산업포장을 수상한 용신양돈영농조합 최재철
대표에게 농장관리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26

한돈인증점

경기 이천 윤기네 갈비

오직 갈비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윤기네 갈비
민윤기 사장의 고기 철학이야기

28

청년이 된다

한돈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다

2월 10일 발족한 한돈미래연구소의 김성훈
소장을 찾아가 나아갈 길을 들어본다.

30

백신 접종 관리

회장염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관리

건강한 돼지를 키우기 위해 중요한
면역력 향상에 관한 이야기

32

한돈 HMR 레시피

한돈 등심 활용 요리

부위별 한돈 요리법을 알아보는 시간,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한돈 등심 요리

34

이달의 키워드

아는 만큼 보여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를 알아보는 코너

35

독자마당

March 2022 Vol.1239

매월

15일 발행

발행일

2022년 3월 15일 발행 (통권 1239호)

발행처

대한한돈협회

0664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화관 3층

제작

디자인신화 02-324-6852

한돈농가 자신을 위해 냄새 문제 조금 더 극적으로 대응해야

양돈분야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농가 입장에선 분뇨와 연관된 여러 환경문제일 것이다. 이 제약 요소는 양돈업이 산업화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언론의 보도를 검색해 보니 1980년 삼성의 자연농원 양돈장에서 양돈분뇨의 불법 방류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 이후 1980년대 내내 양돈분뇨의 불법 방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결국 1991년 3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2006년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이 제정되면서 가축분뇨 관리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2006년 가분법은 양돈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된 법률로 가축분뇨를 폐기물보다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법률이 가축분뇨의 처리에 방점에 찍혀 있었다는 데 있다.

양돈분뇨의 무단 방류나, 해양투기 되던 양돈분뇨의 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지만, 양돈분뇨에서 유래하는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축산냄새 문제가 분뇨에서 유래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축산분뇨의 신속한 처리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양돈분뇨 문제 대부분은 냄새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글 김재민 편집장
농장에서 식탁까지/팜인사이트
jmkim9419@daum.net



축산냄새 민원은 양돈이 주범

냄새 민원은 농촌지역에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이로 인해 냄새관리 지정, 사육제한 지역이 설정되며 축산입지 역시 축소되고 있다.

〈냄새 민원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증감
전체민원	14,816	15,573	24,748	22,851	32,452	40,854	8,402
축산민원	2,838	4,323	6,398	6,112	6,705	12,631	5,926
(%)	(19.2)	(27.8)	(25.9)	(26.7)	(20.7)	(30.9)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냄새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냄새 관련 민원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종별 분뇨 발생량〉

축종별 발생	계	한육우	젓소	돼지	가금	기타**
사육두수(천마리)	210,733	3,081	407	11,358	175,962	19,925
분뇨발생량(천톤)* (점유율)	51,013 (100)	15,404 (30.2)	5,599 (11.0)	20,689 (40.6)	7,707 (15.1)	1,230 (2.3)

※ 사육두수 : 가축통계('18, 1~4분기 평균), 기타가축('17.12) 사육두수 기준으로 산출

* 축종별 분뇨발생량(1일/두) : 한우 13.7kg, 젓소 37.7, 돼지 5.1, 닭·오리 0.12

** 말, 사슴, 양, 토끼, 개, 칠면조, 메추리, 타조, 펭 등

냄새는 분뇨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분뇨의 배출량을 보면 냄새민원이 어디에 집중될지는 가늠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돼지가 40.6%, 다음이 한육우로 30.2%, 가금이 15.1%로 세 번째를 차지한다. 분뇨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냄새 민원은 돼지가 전체의 40% 정도, 소가 30% 정도를 차지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축산환경개선지역 현황〉

구분	합계	돼지	한육우	젓소	가금
농가수	1070	947	23	19	81
비율(%)	100	88.5	2.1	1.8	7.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실태조사('18.1~3) 결과 1,070호의 냄새 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민원 유발 농가 중 양돈농가가 947호(8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분뇨발생량 2위를 차지하는 한육우는 2.1%로 가금 7.6%보다 민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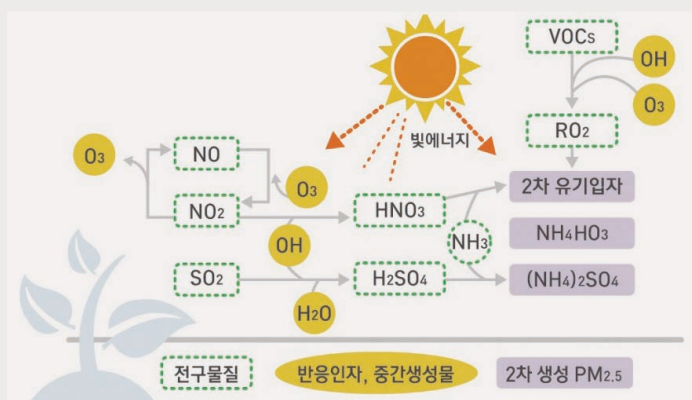
냄새가 미세먼지로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가축분뇨 및 축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물질은 황화합물류, 휘발성 지방산류, 페놀류, 인돌류, 암모니아 및 휘발성 아민류로 분류되고 있다. 이 물질들은 가축의 소화기관 또는 가축 분뇨를 저장하거나 처리할 때 생성된다.

이 중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는 유독성 기체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농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슬러리 처리 등을 위해 액비 저장조나 축분 저장조에 들어갔다가 농장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는 암모니아가 매우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암모니아 가스 자체로도 독성이 강하지만 암모니아는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PM2.5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 생성에 관여하며, 국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70~75%가 암모니아와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



자료 : 환경부(2016), p9에서 인용

위의 그림은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는 질소화합물(NOx), 황화합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암모니아(NH3)와 반응하여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과 같은 초미세 입자가 형성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전 세계 사망자 8명 중 1명은 실내외 공기오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즉 700만명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370만명이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했다고 분석한다. 이 중에서도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폐암 등이 심각한 질환으로 꼽혔는데, 이런 이유로 WHO 산하 암 연구소는 미세먼지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정의한 바 있다. (사이언스 타임즈. 2015.4.20.)

미세먼지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과거 환경 당국은 질소 화합물과 황화합물 배출을 규제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효과가 크지 않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축산부문을 규제하기로 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축산 관련 시설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출허용기준도 50ppm 이하(그 밖의 배출시설)로 높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기준에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새로 지정되었고 배출기준도 30ppm 이하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여받았다.

축산농장, 퇴액비 보관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가축분뇨를 활용해 퇴비를 제조하는 퇴비공장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이 퇴비공장의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환경부 등을 설득한 끝에 3년간 유예를 받게 되었지만, 미세먼지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보다 지원으로 능동대응 기반 마련해야

축산냄새 문제가 2010년대 들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쟁점이 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전구물질이라는 것까지 알려졌다지만, 냄새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농가 입장에서는 이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지만, 비용은 짧은 시기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농가는 돼지 판매에서 오는 수입으로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양돈장이 정부의 지원 아니면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양돈농가들의 평균 MSY는 2020년 기준 18.3두로 2018년 17.9두보다는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 한참 뒤쳐져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내 종돈 다산성 형질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두 이상은 출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즉 생산성이 낮아 냄새 방지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없고, 확실히 효과가 있는 설비를 꾸준히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본의 축적과 냄새 저감 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이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이중 삼중의 규제가 가로막으면서 양돈농가들을 양돈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농가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냄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제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도 단순히 규제 장벽만 높게 쌓을 것이 아니라 규제의 도입과 함께 농가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투융자사업, 컨설팅사업 등을 동시해 진행해 농가들이 냄새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냄새 문제



돼지고기 먹을 땐 한돈인증점 마크 확인!

한돈인증점이란?



2007^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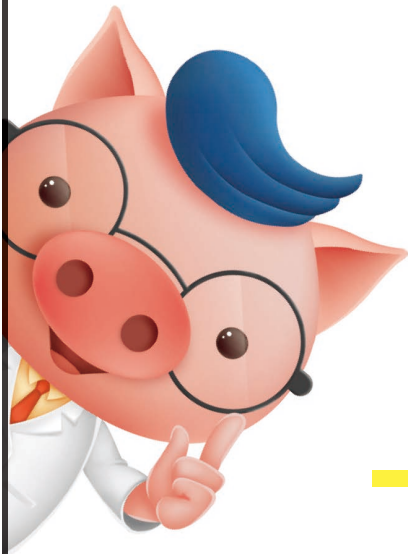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을 농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사용하는 업소가 수입육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수익을 증대하도록 지원하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한돈인증점은?



1,112^{호점} 돌파

한돈인증점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 1,112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돈인증점의 원칙

3 원칙

신선한 한돈!

깨끗한 한돈!

맛있는 한돈!

한돈인증점 신청 후 소요시간

1^년 6^{개월} 소요

한돈인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구매관리, 매출규모, 매장 시설 및 식자재 보관 청결상태, 종업원 복장 및 청결 친절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청 후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년~1년 6개월 정도입니다.

한돈인증점 신청 관리 절차

7 단계

1단계 온라인 신청

2단계 서류 심사 후 1차 선발

3단계 현장 심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4단계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후
인증 부여 결정

5단계 부여 업체에 대한 인증내용
교육 및 인증협약 체결

6단계 인증 부여 및 홍보물 지원

7단계 브랜드 경영체와 인증관리
팀의 지속적인 관리

한돈인증점이 받는 혜택

6 가지 혜택

- ① TV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한돈인증점 홍보**
- ② **한돈 외식메뉴 요리 강좌**를 통한 인증점 교육
- ③ 한돈인증점 **선택형 홍보물** 배포
- ④ 한돈인증점 소식지를 통한 **한돈 소식 수급**
- ⑤ 한돈 **판매촉진 마케팅** 동참 (할인행사 지원)
- ⑥ **한돈이벤트** 등의 **경품 활용**



다시 함께, 다 함께 한돈! 3월 3일 삼겹살데이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한돈자조금에서는 ‘다시 함께, 다 함께 2022 한돈 삼겹살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라이브방송, 할인행사, 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했던 삼겹살데이 이벤트 프로모션을 따라가본다.

Event 1

한돈몰 한돈세트 50% 할인 판매 (3/2~3/11)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은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10시, 한돈 삼겹살데이 기획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파격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매일 350세트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었으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종료되었다. 또한 3월 2일 오후 7시에는 한돈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착순 1,000명에게 삼겹살 1kg, 목살 1kg구성의 한돈 세트를 50% 가량 할인된 27,000원에 특가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할인상품은 모두 무료배송으로 진행됐으며 순식간에 매진이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Event 2

유튜버 썬양과 함께 하는 유튜브 라이브(3/3)

3월 3일 강남에 위치한 쿠킹 스튜디오에서는 먹방 유튜버 썬양이 참여해 삼겹살챌린지에 참여했다.

56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 썬양은 전통시장 살리기, 소상공인 돕기 등에 적극적인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썬양은 한돈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비법, 한돈의 우수성 등에 대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라이브 방송은 3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한돈 자조금 유튜브(www.youtube.com/porkboardhandon)에서 방송했으며 실시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돈몰 인쿠폰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다.

Event 3

#내맘대로 삼겹한쌈 챌린지 (3/3~3/20)

삼겹살데이 문화 확산과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맘대로 삼겹한쌈 챌린지’도 진행한다.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신만의 삼겹한쌈 이미지 또는 영상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황금돼지순금 1돈 및 한돈세트 등을 증정한다.

Event 4

한식진흥원과 함께하는 한돈 쿠킹클래스(3/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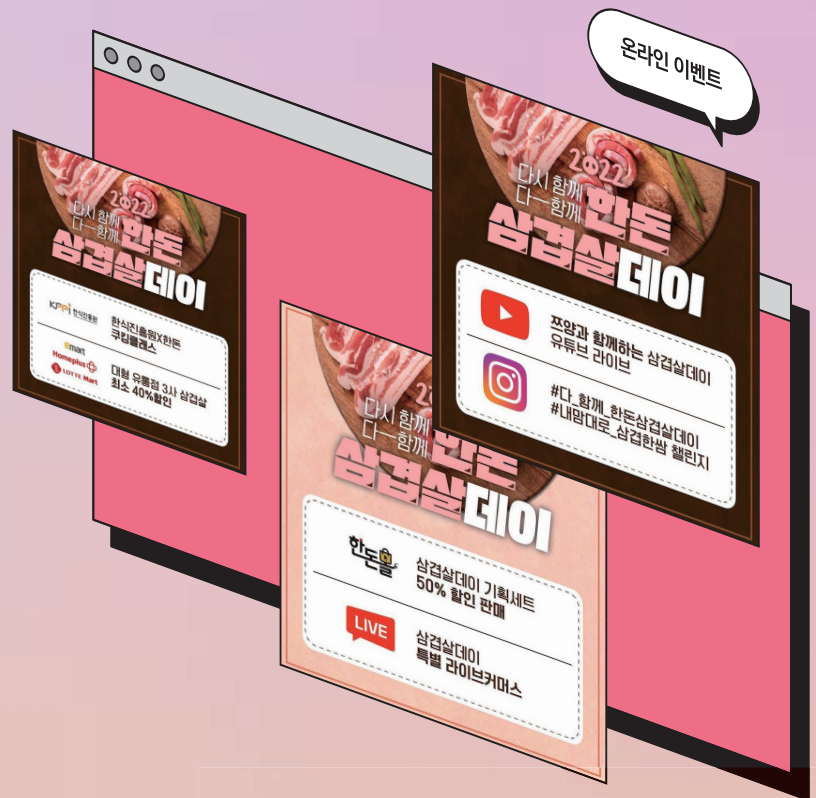
우리 한돈의 맛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월 3일과 4일, 양일간 ‘한돈X한식 온·오프라인 쿠킹클래스’도 진행했다.

한식진흥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쿠킹클래스는 한돈을 활용한 음식들을 선보여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돼지 한돈의 장점을 알려 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사전예약을 통해 마련된 이번 한식클래스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을 하여 한돈과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Event 5

대형유통점 3사 한돈 할인(3/3 전후 일주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됐다. 3월 3일 전후 일주일 동안 삼겹살, 목살 등의 부위를 최소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대형유통점은 이번 행사로 돈육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물가 부담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30%, 이마트는 40% 물량을 확대하여 물량을 확보하여 대비할 정도로 높은 성원을 얻었다.



2022년 2월·2022년 3월

한돈자조금

주요
활동

2월 주요 활동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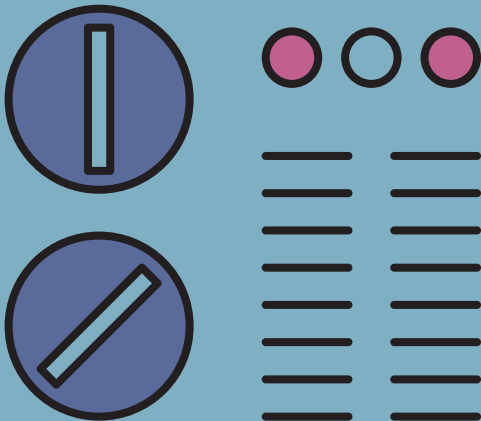
- 농식품부 '22년 사업계획 승인 요청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요청
- '22년 설 명절 캠페인 결과 보고
 - 사업 결과 취합 및 보고
- 삼겹살데이 행사 준비
 - 주요 행사 계획 수립
- '22년 한돈 TV광고 촬영
 - 광고 시안 수립 및 촬영
- 한돈 인증 사업
 - 신규인증점 수시심사 추진 및 사후관리
 - 한돈BI 심사 추진
- '21년도 자조금 사업 결산 내부감사
 - 감사자료 및 일정 준비
- 2022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부스 운영
 - 한돈홍보관 부스 운영
- TV광고 및 디지털 매체 운영
 - 백종원 모델 소재 광고 온에어

3월 주요 활동 결과

- 농식품부 '22년 사업계획 승인 요청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요청
- '22년 한돈 TV광고 온에어
 - 한돈 신규 비즈링 런칭 및 포스터 제작 배포
- 옥외 및 스포츠 마케팅
 - 프로야구 시범경기 잠실 야구장 롤링보드 광고
- 삼겹살데이 행사
 - 유튜브 인플루언서 쓰양 협업 라이브 방송 진행
 - 삼겹살데이 한돈몰, 라이브쇼핑 한돈 기획전 진행
 - 삼겹살데이 대형유통점 할인행사 진행
- 한돈 인증 사업
 - 신규인증점 수시심사 추진 및 사후관리
 - 한돈BI 심사 추진
- 제1차 관리위원회 개최 (3/10)
- 제1차 대의원회 개최 (3/29)
-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 신임 사무국장 이원복 씨

흥겨운 자리에는 한돈

2월의 TV속 한돈은 즐거운 자리의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 주는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다. 설날 특집으로 진행된 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에게 주는 우승 상품으로 등장하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보스들의 모임에서 먹방의 주연으로 등장하여 흥을 돋우기도 했다.



JTBC <아는 형님> 2월 5일 방송



천하장사 씨름대회 우승상품 한돈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한돈이 등장했다. 2022년 설 맞이 형님학교 씨름대회에 우승상품으로 등장한 것. 2019 천하장사 이진호와 아육대 씨름 금메달 문빈, 2018 천하장사 이수근, 용병 신동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씨름 대회의 우승자는 바로 신동. 우승 가운데와 한돈을 전달 받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월 6일 방송



몸무게 총합 538kg의 한돈 먹방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보스들의 자발적 자아성찰 프로그램이다. 2월 6일 방송에서는 제1회 보스 총회 이후 식당에서 시작된 울들의 폭로전이 방송됐다. 그 자리에서 몸무게 총합 538kg를 자랑하는 4인방은 간단하게 한돈 20분으로 시작하는 엄청난 먹방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위한 한돈인의 ESG 실천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돈의 사회공헌 허브 '한돈뱅크' 출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는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발맞춰 한돈농가 및 국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한돈뱅크(www.handonbank.or.kr)'를 2월 24일 선보였다.

한돈뱅크는 한돈자조금의 사회공헌 히스토리를 집대성한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그간의 장학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군부대 나눔사업, 한돈농장 환경개선 프로젝트(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 등과 기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돈자조금의 누적 기부액은 약 118억원(총 11,827,813천원)에 달하며, 전국 10개(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별 나눔액, 한돈물 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2%가 적립된 사회공헌기금 등을 합한 총 금액이다. 향후에는 일반 국민들도 직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돈자조금은 한돈뱅크 출범과 더불어 국내 최대 공익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해피빈 캠페인은 이용자들의 미션 참여와 댓글을 통해 기부금이 적립되며, 캠페인 모금액 전액은 명지복지재단 및 하당노인복지관에 기부된다.

한편 한돈 공식 페이스북 채널에서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돈뱅크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한돈뱅크 웹사이트 방문 인증샷을 페이스북 댓글로 작성 시, 추첨을 통해 한돈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 한돈의 사회공헌허브 한돈뱅크 홈페이지(왼쪽), 국민 참여 해피빈 캠페인 페이지(오른쪽) 홈 화면



‘한돈 뺑햄’ 판매 이익금 1억 8천여만 원 전액 기부 ‘화제’

한돈자조금 홍보대사 백종원의 나눔 실천

한돈홍보대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돈 뒷다릿살을 활용해 개발한 ‘한돈 뺑햄’의 판매 이익금 1억 8천여만원(총 180,124,000원)을 나눔축산운동본부에 2월 15일 기부해 화제이다.

‘한돈 뺑햄’은 코로나19 여파로 재고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돼지 다리살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한돈자조금과 홍보대사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협업하여 개발한 캔 햄이다. 구이·찌개 등 다양한 용도로 즐길 수 있으며, 100% 한돈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월 출시와 동시에 1차 생산물량이 조기 완판되는 등 큰 화제를 일으키며 1억 8천여만원의 이익금을 냈다.

판매 이익금 전액은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 운동체인 나눔축산운동본부에 전해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과 더불어 한돈 농가 및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주신 백종원 홍보대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한돈인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한돈 뺑햄을 맛있게 즐겨주신 모든 분들이 이번 기부에 함께한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과 한돈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며, 한돈 소비 촉진은 물론 한돈의 가치를 알리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림픽 선수단 선전 기원 이벤트

“한돈이 국가대표 응원합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 기원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자조금관리위는 동계올림픽이 폐막할 때까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밥상 위의 국가대표 한돈이 응원합니다’ 이벤트를 한돈닷컴에서 진행했다.

열띤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작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5명을 선정했으며, 한돈 삼겹살+목살 세트(10명), 던킨도너츠 1만원 교환권(10명),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15명)을 경품으로 증정했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힘입어 같고 닮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화우 상생협력 협약 체결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유) 화우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일환으로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 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한한돈농가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기적,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돈산업의 미래를 설계한다!

‘한돈미래연구소’ 본격 출범

동물복지 · 환경 · 방역 등 한돈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돈미래연구소’가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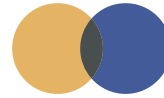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월 10일 급변하는 한돈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돈농가의 권익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인 ‘한돈미래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연구소는 최근 한돈산업이 동물복지 · 탄소중립 · 대체단백질 문제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한돈산업의 환경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 · 제도 등을 신속 ·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구소는 향후 △동물복지 △한돈산업 관련 새로운 산업동향 등의 검토 · 연구 △방역 · 환경 등 한돈산업 분야별 정책방향 연구 및 전략수립 △한돈산업 관련 법령 제 · 개정 제언 △농가의 권익향상을 제고 하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게 된다.

이날 손세희 회장은 “동물복지 등 한돈산업관련 새로운 산업동향 등의 검토 · 연구, 방역 · 환경 등 한돈산업 분야별 정책방향 연구 및 전략수립, 한돈산업 관련 법령 제 · 개정 제언 등을 통해 한돈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의 권익향상을 제고 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소가 하게될 일은 예를 들어 동물복지를 실천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개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 이에 연구소에서 합리적인 동물복지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 앞으로 연구소를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한돈산업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은 지난 2월 22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한돈 협회를 방문하여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에게 한돈산업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기금을 전달하면서 “양돈 전문조합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 사업 다각화로 조합원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왔다”며, “전국 한돈농가들의 구심점인 대한한돈협회와 조합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이에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최근 코로나, ASF 등 어려움 속에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보내주신 기금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은 국내 한돈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품목 협동조합으로 내 실 있는 경영 실천을 통해 지난 해 사업실적이 총 3조5천7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임신돈 군사사육시설 적용 매뉴얼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임신돼지 사육 시설을 군사(무리 기르기) 시설로 변경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임신돈 군사 사육 시설 적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임신돼지 군사 사육 시설 소개와 도입 배경, 국외 사육 동향 등이 실렸으며, 군사 사육 시설의 종류와 선택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군사 사육 시설은 반고정틀(반스틀), 자유출입틀(자유출입스틀), 자동급이 시스템 등이 있다.

각 시설의 장단점과 임신돼지의 생산성(번식 및 포유 성적) 연구 결과도 제시해 농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면 임신돼지 군사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존 양돈농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임신돼지 군사 사육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책에는 사육 시설 변경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실려 있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에 책을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돈자조금 광고 한돈구매 증가 '효자'

효과 분석 결과 시청 후 구매의향 73%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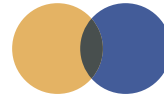
한돈자조금사업을 통한 한돈광고가 소비자들의 실구매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뒷받침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는 지난해 11~12월 국내 소비자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돈 광고효과 및 돼지고기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돈 뒷다릿살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대사 백종원이 출연한 TV캠페인 광고 '한돈 먹고 뒷심 충전'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는 각각 63.1%, 75.5%를 기록하며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광고 시청 후 한돈 구매의향이 73%까지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홍보모델로서 한돈홍보대사 백종원씨에 대한 평가도 적합도 82.2%, 신뢰도 81.6%, 한돈 이미지 도움 정도 82.4%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특히 '백종원과 함께 떠나는 한돈 랜선투어'를 콘셉트로 강원도의 아바이 순대 · 경상도의 돼지국밥 · 경기도의 돼지갈비찜 등 전국 팔도의 대표 한돈 요리를 엄선하여 선보인 총 6편의 한돈 디지털 광고 시리즈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0.4%가 광고가 마음에 든다고 응답했을 뿐 만 아니라 시청 후 구매의향도 83.3%로 매우 높았다.





1,000㎡ 이하 2명
고용 가능, 외국인 도입
규모도 25% 확대

소규모 양돈장 외국인 근로자 허용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0㎡ 미만의 영세한 양돈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21일 세부적인 대책을 확정, 올해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 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돈농가의 경우 규모가 500~1,000㎡ 이하인 농장의 경우 2명을 고용이 가능해졌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선 올해 1월부터 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각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한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질병 유입을 차단한다

1993년 설립된 이래 성주군의 터주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는 용신양돈영농조합법인(이하 용신양돈). 지난해 11월 10일 제26호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농업인에 대한 정부포상으로 산업포장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한돈 생산은 물론 지역 환원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실행하는 용신양돈의 최재철 대표에게 비법을 들어보았다.

용신양돈영농조합 **최재철** 대표

삼성중공업 퇴사 후 뛰어든 양돈업

최재철 대표(한돈자조금관리위원/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는 삼성중공업에 다니고 있던 1986년, 몇 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뛰어든 양돈업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다. 그만둔 회사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양돈업에 대해 배워가면서 보람도 생겼다.

“마침 1993년에 농림부에서 양돈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게 용신양돈입니다.”

1993년에 농장 조성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민원이 문제였다. 마을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진행하고 나니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1997년에 준공이 완료됐다.

“돼지 입식도 못했는데 바로 IMF가 터진 거예요. 정말 그 때는 눈앞이 깜깜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같이 하던 사람이 못하겠다고 나가 버리는 일도 생겼다. 하지만 기반 조성을 다 해 놔는데 포기하기도 어려웠다. 농장을 쓸고 닦으며 준비를 하다가 1999년에야 돼지 입식이 이루어졌다.

“농장 조성한지 6년만에 이루어진 입식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IMF 오기 전에 입식이 이루어졌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1



2

1.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된 농장 내부
2. 철저한 관리로 키워지는 한돈

좋은 생산성의 비결은 철저한 분업

“정부 표준 설계도대로 지었어요. 설계도를 따라 정직하게 지으면 축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기초를 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많이 보지 않고도 잘 있을 수 있죠. 윗부분은 아직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용신양돈은 아직까지 ICT 같은 최첨단 시설보다는 사람 손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 이는 최재철 대표의 ‘짐승은 사람 손이 많이 가야 튼튼하게 자란다’는 신념 덕도 있다.

“ICT가 확실히 편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눈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돈 한 마리 한 마리가 오늘 상태가 어떤 지 사람이 제대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용신양돈의 MSY는 현재 24두. 2만두 규모의 농장에서 상당히 좋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 1등급 출하율은 80% 이상이다.

“115kg에 정확하게 맞춰서 출하하면 1등급이 나옵니다. 20%의 경우는 체중을 좀 더 늘려서 출하해 달라고 주문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생산하면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1등급입니다.”

이런 출하체중 관리는 철저한 전산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령별 두수 현황이 올라가면 180일 전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용신양돈은 분만사, 임신사,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로 이동 동선이 분리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는 물처리, 전기공무, 책임자 등 팀별로 나뉘어서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갖추었다.

“일을 분업화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그리고 오래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생기죠. 저희 농장에는 10년 이상 오래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능력있는 분들이 오래 일한 것도 업무 능률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냄새저감

용신양돈은 민원이 없다. 지역 주민과 함께 살기 위해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냄새를 없애고 필요한 게 없는지 먼저 챙기기 때문이다.

질병이 한 번 발생하면 이웃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 방역은 기본이다.

“저희는 농장 내에 외부인은 아예 못 들어옵니다. 사료와 물 등은 모두 농장 자체 차량이 싣고 이동합니다. 외부인



냄새가 없어도 사람들은 눈과 마음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농장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냄새 관련 민원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희 농장이 민원이 없는 비결에는 농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이고 뒤에는 산이라서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주차장까지입니다. 사무실을 농장 입구와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들어 놓은 이유도 차단 방역 때문입니다.”

주변의 울타리를 촘촘하게 쳐 놓고 CCTV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질병을 원칙적으로 콘트롤하기 위해 종돈 구입 역시 한 농장에서만 구입한다.

“한 농장에서만 종돈과 정액을 받으면 질병 대응이 쉬워집니다. 폐쇄돈군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까지 질병 콘트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길

“사료값과 인건비가 다 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농림부에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작은 농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재철 대표는 모돈이력제, ASF 8대 방역 역시 농장 사정에 맞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역이 최선인가를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은 국민 먹거리입니다. 한돈자조금에서 좋은 가격에 국민들이 우리돼지 한돈을 먹을 수



한돈자조금에서 농가의 어려운 점을 농림부에 얘기하고 설득시켜 같이 상생할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습니다.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재철 대표는 본인이 생각한 방법으로 지역 농장과 육가공업체, 한돈인증점을 같이 연결하여 좋은 가격에 직접 한돈을 대 주는 것 등도 꾀었다.

“한 평생을 일궈온 농장이니 힘 닿는데까지는 계속 해 보려고요. 양질의 한돈을 생산하여 공급해서 우리 돼지 한돈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용신양돈영농조합
최재철 대표가
전하는
사양관리 TIP

1

다선성 품종을 선택하라

새끼를 많이 낳는 돼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만하다가 실패한 돼지가 있더라도 수확성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2

질병 콘트롤이 필요하다

한 농장에서 모돈과 정액을 모두 받습니다. 여러 농장에서 받다 보면 질병들끼리 교차가 되면서 콘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3

육가공에서 원하는 돼지를 키워라

우리 농장의 돼지를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실하게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윤기네 갈비 민윤기 대표

정직한 한돈갈비로 선보이는 맛의 향연 윤기네 갈비

덧살 하나 없는 제대로 된 갈비를 알맞게 숙성시켜, 촘촘하게 칼집을 내고 담백한 양념에 재운다. 돼지 비계로 문질러진 불판에 양념 갈비가 올라가면 치이익 하고 맛있게 익는 소리가 들린다. '고기 한 점이 소중한 집' 바로 윤기네 갈비의 맛있는 이야기이다.



갈비 하나만을 생각한 외고집

윤기네 갈비 민윤기 사장은 1995년 유명한 돼지갈비 전문점에서 주방 일을 시작했다. 당시 많은 손님들이 그곳의 돼지갈비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이런 갈비집을 해야겠다는 꿈을 가졌다. 12년 전에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고기 맛이다.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2041번길 167(사동리) 3층

📋 한돈 갈비 1인분 13,000원
갈비+물냉면 10,000(오후 4시까지 판매)

🕒 10:00~22:00

윤기네 갈비의 비법

물과 캐러멜을
넣지 않고 간장과
과일, 채소로만
맛을 낸 양념 갈비



과일과 각종
야채를 넣고
푹 끓인
비법 소스와
신선한 야채



부드러운
갈비살과
어울리는
갈끔한
부추무침



신선하게 관리하는
양상추 샐러드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으로
고기맛을
잡아주는
피클

고기가 맛있다는 브랜드는 모두 먹어보고 선택한 것이 한돈 브랜드육이었다. 단가는 조금 있었지만 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고기맛을 끌어올리는 숙성과 양념의 비결

윤기네 갈비는 덧살을 쓰지 않는 순수 갈비 부위만을 고집한다.

“갈비를 최대한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적절한 숙성이 필요합니다. 칼집을 촘촘하게 내서 최적의 온도에서 며칠을 숙성시키죠. 그렇게 숙성된 고기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칠맛이 최대로 끌어올려진 맛이 나요.”

윤기네 갈비의 양념갈비는 일반 양념 갈지 않은 생고기 같은 색이 난다. 양념은 간장과 과일, 채소 등을 넣고 푹 끓여서 만든다. 색을 내는 캐러멜은 물론 물도 들어가지 않는다.

“손님들도 그 소리를 하세요. 여기 갈비는 색이 검지 않네요? 라고요. 간장으로 양념을 하게 되면 색이 그렇게 검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기맛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하면서 칼집에 대해서도 많은 실험을 했다. 촘촘하게 칼집을 내는 게 최대한 고기맛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민윤기 대표는 칼집 전용 도마도 개발했다.

“도마를 깎아주는 공장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아는 분의 아드님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도마를 만들고 나서 작업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갈비 본연의 맛

양념 갈비를 주문하면 주는 비계 덩어리를 달궈진 불판에 문지른다. 잘 숙성된 양념 갈비를 불판에 올리면 금세 맛있는 냄새가 난다. 민윤기 대표가 추천한 대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 야채소스와 갈비를 한점 먹어본다. 부드럽고 고소한데 짜지 않고 담백하다. 잘 숙성된 한돈의 감칠맛이 야채소스와 만나 최대로 끌어올려진다.

“시판 소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채 소스도 개발했습니다. 각종 과일과 야채를 직접 2시간 정도 끓여서 만드는 소스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양념갈비를 같이 먹으면 맛의 궁합이 좋습니다.”

민윤기 대표는 한돈자조금에 당부의 말도 했다. 한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한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 돼지 한돈이 수입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맛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윤기네 갈비! 앞으로도 변함 없는 품질의 한돈 갈비를 내놓겠다는 대표의 다짐에서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은 가게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다짐이 보인다.



한돈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다

지난 2월 10일 한돈미래연구소가 발족식 및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동물복지·탄소중립·대체단백질 문제 등 다양한 한돈산업의 환경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제도 등을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돈미래연구소의 김성훈 소장을 만나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한돈미래연구소 김성훈 소장

Q. 한돈미래연구소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A. 양돈업의 경우에는 오해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돈농가와 육가공업체, 사료회사, 유통업자 등이 각자 도생을 했다면 이제는 한돈산업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뭉쳐 국민들에게 양돈업 자체의 인식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이런 한돈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현안의 해결책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Q. 한돈미래연구소에서 선정한 우선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안 해결과 미래 방향 제시의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안 해결쪽을 살펴보면 가전법, ASF 등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은 정부가 발표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정부 관리자가 아니라 한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미리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ASF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지만 힘든 것 등으로 세분화를 한 후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미래 방향 제시는 한돈산업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냄새 저감, 탄소중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각 분야의 이름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설득력 있는 논리와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굴레처럼 씌워져 있는 양돈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한돈산업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돈미래연구소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A. 아직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어떤 부분을 먼저 손을 대야 할 것 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명망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전문가 풀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운영위원들과 준비 회의를 하며 열심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3월 내로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돈의 미래 패러다임에 대해 한 마디 하신다면요?

A. 지금까지의 한돈산업은 농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닌 돼지고기를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최종 고객은 평범한 우리 이웃인 소비자이지 유통업자, 육가공업체가 아닙니다. 한돈산업 종사자들끼리 같이 뭉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데 동참한다면 사회에게 인정받는 한돈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오래 갈 수 있는
연구소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한돈자조금을 비롯한 한돈업계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장염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력 관리

건강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면역력부터 키워야 한다. 최근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면역력 형성에 장관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 미생물군유전체)’이 건강관리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Leite, F.L.L., Singer, R.S., Ward, T., Gebhart, C.J., Isaacson, R.E., 2018. Vaccination against Lawsonia intracellularis Decreases shedding of Salmonella enterica serovar typhimurium in Co-infected pigs and Alters the gut microbiome. Sci. Rep. 8, 2857.

Visscher, C., Mischok, J., Sander, S., Verspohl, J., Peitzmeier, E.U., von dem Busche, I., Kamphues, J., 2018. Spread of an experimental Salmonella Derby infection. In: Antibiotic-Treated or Lawsonia Intracellularis Vaccinated Piglets. Animals (Basel), 8.



이성원 수의사

돼지수의사회 임상분과
010-5466-4346
kyssman@gmail.com

미생물 유전체의 결합,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 (Genome)의 결합으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 (Microbiota)와 한 개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 유전체 (Genome)의 합성어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약 95%는 장 속에 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많은 필수 기능을 수행한다.

- ☑ 미소화 사료를 분해하여 소화를 도움
- ☑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
- ☑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경쟁하여 감염 예방
- ☑ 비타민 K&B12 및 단쇄지방산(Butyrate 등)과 같은 필수 영양소의 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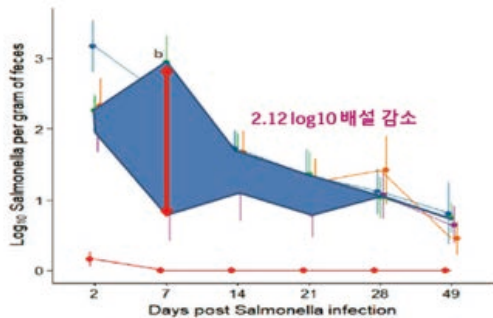
☑ 점액층 형성에 도움

양돈분야에서도 최근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질병 연관성에 대해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돼지에서 항생제 및 회장염 백신을 사용 한 이후 마이크로바이옴 및 살모넬라 균 배설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장염 경구백신 접종을 통한 살모넬라균 배설 감소 및 돼지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Salmonella Typhimurium은 사람에서 음식물 매개 소화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 하나로 돼지에서도 소화기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돼지에서는 회장염균과 동시에 감염되면 설사증상을 심하게 유발시키며 더욱 살모넬라균 배설을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회장염에 대한 백신접종(Enterisol Ileitis, Boehringer Ingelheim)이 살모넬라균 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 방법 및 그룹



▲ 실험 결과

- 살모넬라균 인공감염 7일 후 회장염 경구 백신 접종을 받은 군에서 분변 1g당 2.12 log10 만 큼 *S. Typhimurium*의 배설이 감소되었다.
-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따르면 회장염 백신 접 종은 *Clostridium butyricum*을 포함한 클로스 트리디움 종을 풍부하게 만들어 살모넬라균 배 설을 억제시킬 수 있다.
- 이 결과를 보면 살모넬라 및 회장염균이 동시 감 염된 돼지에 회장염 백신 접종을 통해 항생제 없 이도 살모넬라균 배설 억제 시 킬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항생제 투약 및 회장염 경구 백신 접종 시 살모넬라 감염 전파 비교

다른 실험은 *Lawsonia intracellularis*(회장염 원 인균) 감염에 의한 회장염(돼지증식성장병증)은 양돈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질 병 중에 하나이다. 또한 회장염은 대부분 양돈장 이 감염되어 있고 이를 컨트롤 하기 위해 다양 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

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로 인한 다른 병 원성 세균등의 감염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회장염이 감염된 돈군을 각각 백신 (Enterisol Ileitis, Boehringer Ingelheim) 및 항 생제(타이로신)로 컨트롤 하는 방법이 이후 살모 넬라균이 감염되었을 때 배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실험 방법 및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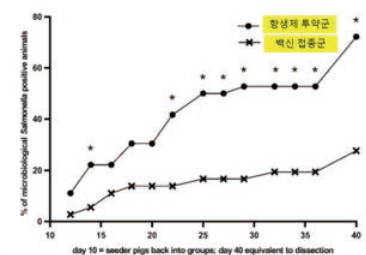


Figure 3. The proportion of positive samples depending on the microbiological *Salmonella* Derby detection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percentage of positive samples after the seeder pigs had been returned to the contact groups (day 10 = seeder pigs back in groups; day 40 equivalent to necropsy) and vaccinated animals (AB⁺VAC⁺) up to necropsy (finished at day 40).

▲ 실험 결과

회장염 백신접종(Enterisol Ileitis)그룹이 항생 제 투약(타이로신)그룹에 비해 살모넬라 감염율 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회장염 치료를 위해 항생 제 사용하였을 때 백신 접종에 비해 살모넬라균(*S. Derby*) 감염에 더 높은 감수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 화로 인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회장염 백신 접종을 통 해 살모넬라 감염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한돈 등심 활용요리 ① 한돈 맥적 비빔밥

돼지의 등심 부위는 고기 결이 곱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좋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용으로도 각광 받는다. 진한 맛이 없이 담백하여 외국에서는 등심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돈까스, 탕수육, 스테이크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재료

밥 2공기, 한돈등심 600g, 청주 2큰술, 설탕 1큰술, 베이비순·대파흰부분 50g
맥적양념 된장 1.5큰술, 간장 1작은술, 꿀 1큰술, 다진마늘 2큰술, 생강즙·다진 대파·참기름 1큰술, 후추 조금
고추장양념 고추장 2큰술, 물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대파 1큰술, 매실청 1큰술, 조청 1큰술, 참기름 1큰술

조리법

1. 한돈 등심은 한입크기로 썰어 분량의 설탕과 청주로 밑간을 하고 된장양념을 넣고 재워 숙성시킨 후 팬이나 석쇠에 굽는다.
2. 베이비순은 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한다.
3. 대파는 곱게 채썰어 찬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4. 그릇에 밥을 담고 베이비순, 한돈맥적, 대파를 보기 좋게 담고 고추장양념을 곁들인다.



② 한돈등심구이와 된장소스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돈 레시피 코너에 소개된 ‘한돈 맥적 비빔밥’ 밀키트를 보내 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응모 방법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재료

한돈 등심 600g, 시금치 1/3단,
단호박 1/3개, 미삼 10g,
소금 조금, 후추 조금
된장소스 된장 2큰술,
다진마늘 30g, 다진양파 70g,
미숫가루 50g, 생크림 1컵

조리법

1. 한돈 등심은 모양대로 1cm두께가 되도록 넓게 칼등으로 편 다음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2. 시금치는 데친 후 다지고 호박은 찌서 으갠 후 시금치, 다진미삼, 소금, 후추를 넣고 섞는다.
3. ①의 등심에 ②의 속 재료를 넣고 말아 호일로 감싼 후 팬에 완전히 익도록 지진 다음 호일을 벗기고 갈색이 되도록 굽는다.
4. 된장소스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양파, 다진마늘을 볶다가 채에 내린 된장과 생크림을 넣어 끓이면 볶은 미숫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춘다.
5. ③의 구운 한돈 등심을 1.5cm두께로 썰어 그릇에 담고 ④의 된장소스를 곁들인다.

이달의 트렌드 키워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삶과 소비 트렌드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뭐가
인기 있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MZ세대가 무엇에
열광하는지, 시시각각 변모하는
트렌드를 파악해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본다.



#신개념 소비 과시 문화

#득템력

득템이란 원래 게임문화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얻었을 때 얻을 득(得)과 아이템 Item의 템을 합쳐 득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용어가 널리 퍼져 원하는 물건을 얻을 때 쓰는 표현이 됐다. 득템력이란 갖기 어려운 아이템을 얼마나 얻는가를 과시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을 줄을 서고 구매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한정된 아이템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득템 과정을 SNS에 공유하며 같이 즐기는 경향이 늘면서 득템력은 더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촌스러움이 촌스럽지 않은 시대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소박한, 투박한이라는 뜻을 가진 러스틱과 삶이 합쳐진 단어로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 여유와 편안함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귀농이나 귀촌과는 구분지어지는 뜻으로 주 생활을 도시에서 하지만 여유 시간을 시골에서 즐기는 것이 러스틱 라이프의 특징이다. 삶 속에서 소박하고 촌스러운 것을 자신의 생활에 더하면서 현재와 다른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한달 살기도 러스틱 라이프의 대표적인 예이다.



돼지'박 선—물

[인증샷]

한돈자조금 소식지 <한돈자조금>
인증샷 찍고! 한돈 받고!

▶ 응모방법

휴대폰

- ① 카카오톡 친구 또는 채팅 탭의 '상단 검색'에서 '한돈'을 검색합니다.
- ② 플러스친구 검색 결과에서 '한돈' 플러스친구와 친구를 맺습니다.
(pf.kakao.com/_RrVul)
- ③ 인증샷과 이름/연락처/주소를 써넣어 전송하면 이벤트 응모 끝!
매일 designshinhwa@naver.com으로 응모

*응모 시에 주소(우편번호 포함)와 휴대폰 번호를 꼭 함께 남겨주세요.

[Quiz]

동물복지 · 탄소중립 · 대체단백질 문제 등 다양한 한돈산업의 환경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 · 제도 등을 신속 ·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한돈미래연구소 | ② 한돈산업연구소 |
| ③ 한돈경영연구소 | ④ 한돈축산연구소 |



<한돈자조금>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었던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돈 밀키트 세트(P33 참고)를
보내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리뷰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기간

2022년 4월 1일까지

발표

2022년 4월호 한돈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연락

문의

02-324-6852

▶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한돈 밀키트 세트

인증샷

허*구(9715), 배*주(3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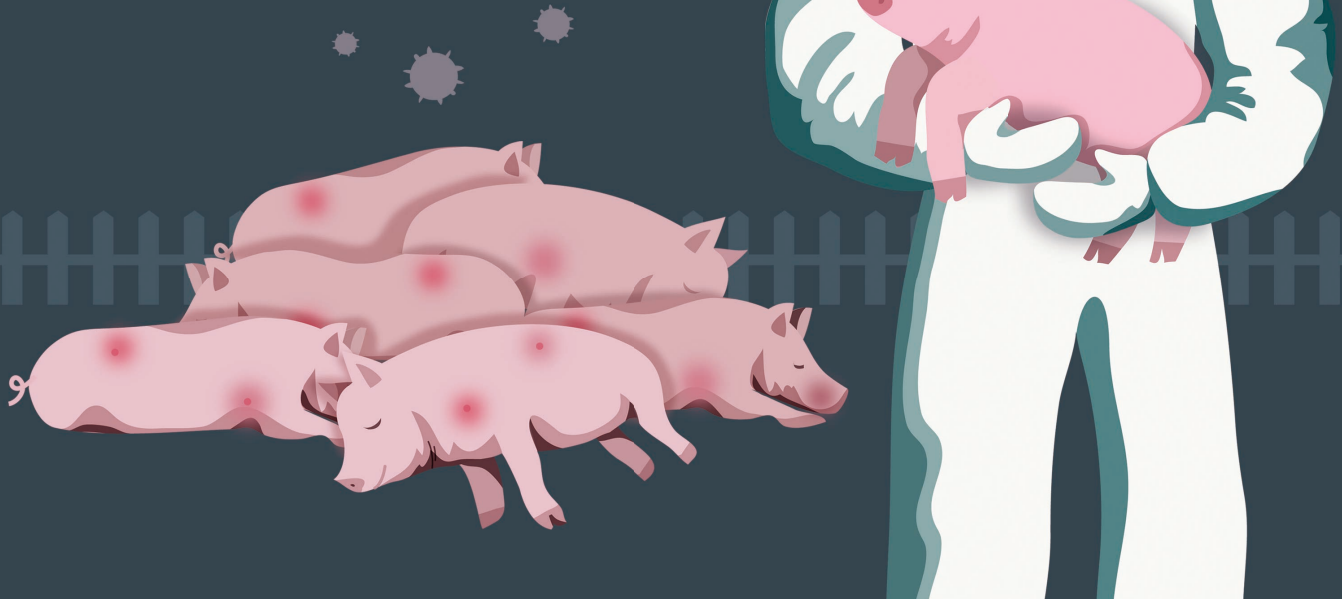
퀴즈

최*규(1231)

*5만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돈자조금 소식지 제작
대행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농장의 안전을 지켜요!

ASF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축사 내부

1. 주기적으로 철저한 청소 및 소독

농장 내부 청소는 물론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 역시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접촉 물품은 내부 물품 보관함에 보관해 주세요.

2. 곤충과 쥐 등의 축사 진입 차단

축사 구멍메우기, 그물망, 방충망 설치를 철저히 하고 끈끈이, 쥐덫, 해충램프 설치, 구충제를 활용해서 쥐와 파리를 구제해 주세요.

3. 축사 진입 시에는 의복 갈아입기

축사로 들어가기 전에 장화와 의복을 갈아입어 주세요. 손씻기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농장 내부

1. 농장 내 야생조수류 먹이 방치 금지

사료, 잔반, 왕겨, 깔집 등 야생조수류의 먹이를 치우고 퇴비사, 사료빈, 출하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2. 농장 내외부에 울타리 설치

농장 내부 배수로, 틈새, 퇴비사 등에 조류차단망, 조밀 망을 설치합니다. 농장 외부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서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3. 농장 내 장비 소독

농장 내에서 사용하는 스키로더 등의 장비는 매일 세척 소독합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묶어서 기릅니다.